

『노동리뷰』 9월호 - 특집

■ “2005년 상반기 노사분규의 특징”(김정우 책임연구원)

- 2005년 8월말 현재 노동손실일수는 434,199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노동손실일수 1,010,149일의 43.0%수준에 그칠 정도로 파업이 감소함.
- 산별교섭의 진전에 따라 파업의 시기별 집중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, 파업강도(누적노동손실일수/누적분규건수)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남.
- 파업강도의 감소는 대규모, 장기간의 분규양상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, 산별교섭의 진전과 함께, 불연속적 부분파업, 순환파업과 같은 쟁의전술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
- 2005년 8월말까지의 파업성향(임금근로자 1,000명당 노동손실일수)은 28.2일로 나타나며, 이는 통상 8월까지의 노동손실일수가 당해년도 노동손실일수의 60~80%수준을 차지해왔음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줄어든 것임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책임연구원
Tel : 783-7155 E-mail : kjw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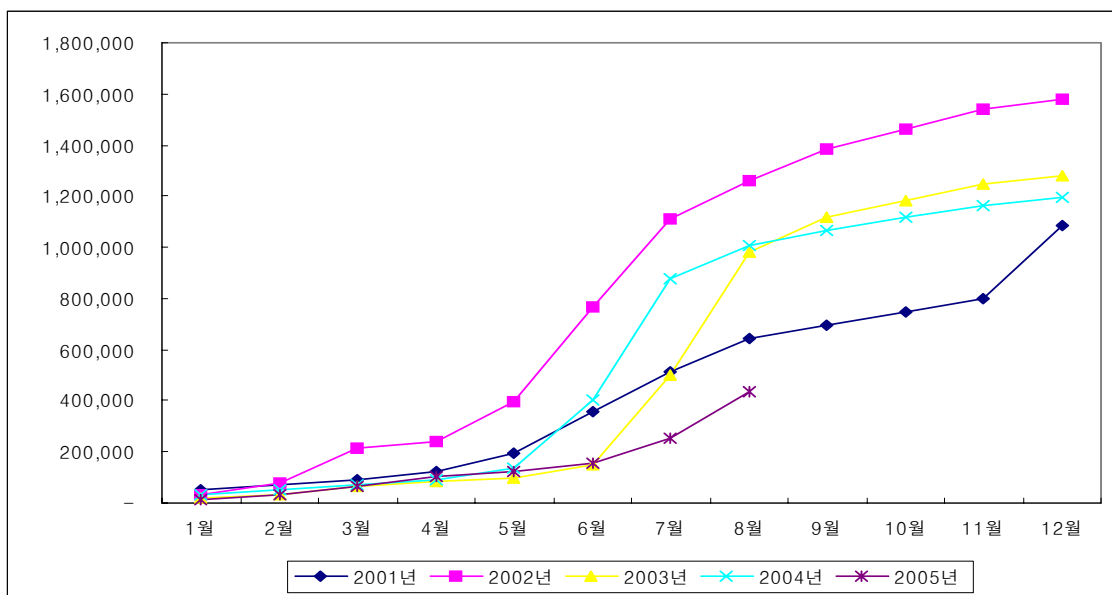
2005년 상반기 노사분규의 특징

담당자	김정우 책임연구원
전화	02)783-7155

○ 2005년 8월말 현재 파업 크게 감소

- 2005년 8월말 현재 노동손실일수는 434,199일로 작년 같은 기간의 노동손실일수 1,010,149일의 43.0%수준에 그침.
- 2001년 이후 가장 노동손실일수가 높았던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34.4%에 불과함.

[그림 1] 연도별 노동손실일수 누적수치 변동추이(2001~2005)



주: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누적치임.

자료: 노동부 내부자료.

○ 분규의 집중화 경향 뚜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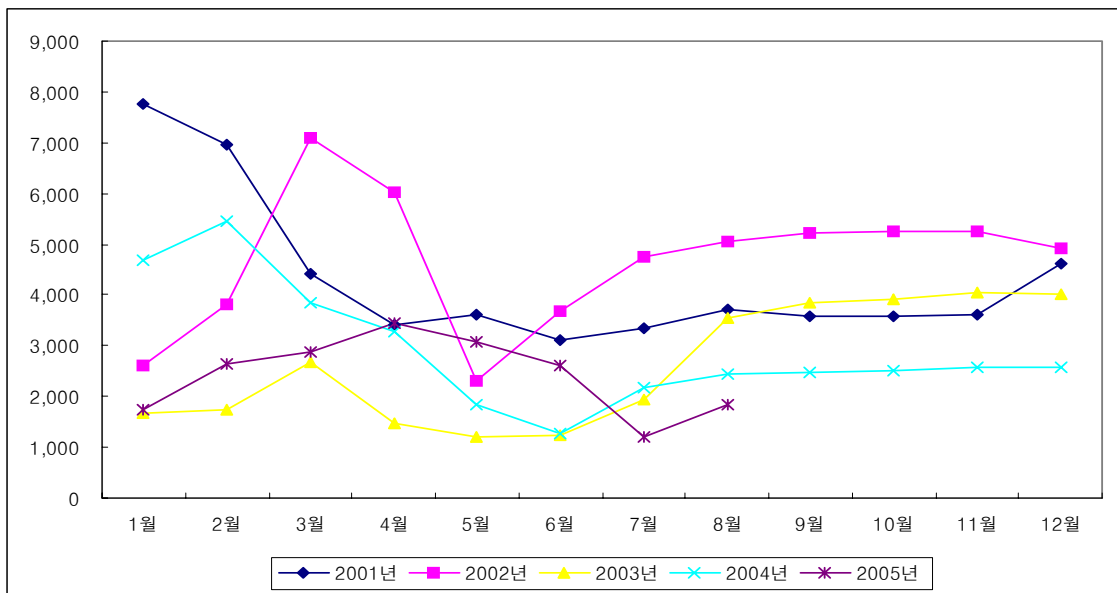
- 2001년 이후 노사분규 발생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6,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함.
- 이는 임·단협 시기가 이 시기 집중되기 때문이며, 특히 올해는 금속노조,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교섭이 7월에 집중되어 이때 신규 발생한

분규건수는 154건으로 8월까지의 전체 분규건수 238건의 64.7%를 차지

○ 산별교섭 진전 및 파업강도 약화

- 2001년 이래 분규 한건 당 발생하는 노동손실일수인 파업강도(누적노동손실일수/누적분규건수)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.
- 파업건수에 비해 노동손실일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규모, 장기간의 파업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, 산별노조의 불연속적 부분파업이나 대규모 공장의 순환파업과 같은 쟁의전술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.

[그림 2] 연도별 파업강도(분규당 노동손실일수)의 변동추이(2001~2005)



주: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(누적)노동손실일수를 (누적)분규발생건수로 나눈 수치임.

자료: 노동부 내부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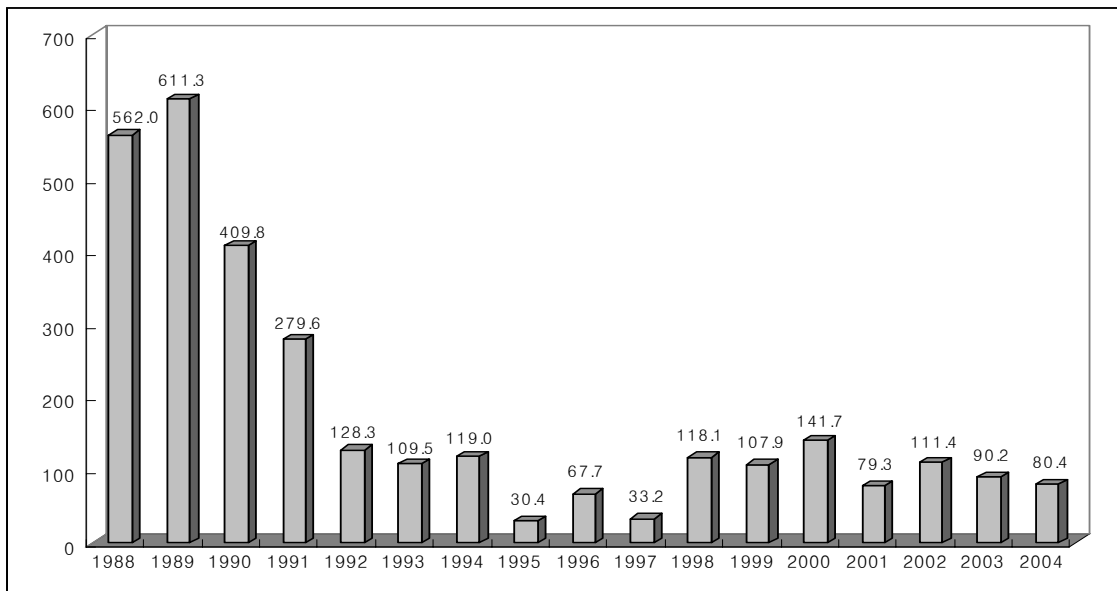
- 실제 금속노조의 경우 4~5차례에 걸친 파업이 전개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파업일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,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86.5%로 가결되는 등 만족도도 높게 나와 교섭비용의 감소 및 안정적 단체교섭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-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파트너십의 확보만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점, 그리고 임금 등 몇몇 부분에서 노사가 윈-윈 할 수 있는 산별교섭의 경험

을 축적한 것은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.

○ 파업성향의 감소

- 통상적으로 8월말까지의 노동손실일수는 연말의 60~80%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, 2004년 8월말 현재의 파업성향(임금근로자 1,000명당 노동손실일수)은 28.2일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음.
- 1988년 이후의 추세를 보아도 초기 3~4년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[그림 3] 우리나라의 파업성향(파용자 1,000인당 노동손실일수) 추이(1988~2004)



자료: 노동부 내부자료;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.

○ 향후전망

- 이러한 수치상으로 나타난 안정화 경향과는 달리, ILO아태지역총회 연회에서 드러나듯이 총연맹 수준의 노정관계는 대립적임.
- 현재 진행 중인 완성차 업체의 파업이 얼마나 지속되는가, 그리고 하반기에 비정규직 법안, 노사관계로드맵 처리 등의 현안을 노사정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올해 전체 노사분규 및 노사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.